

사업 자금 마련, 이렇게 하자

제과인들을 위한 은행 이용법

제과점을 신규 오픈하거나 확장할 경우, 필요 자금을 마련하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

가장 쉬운 방법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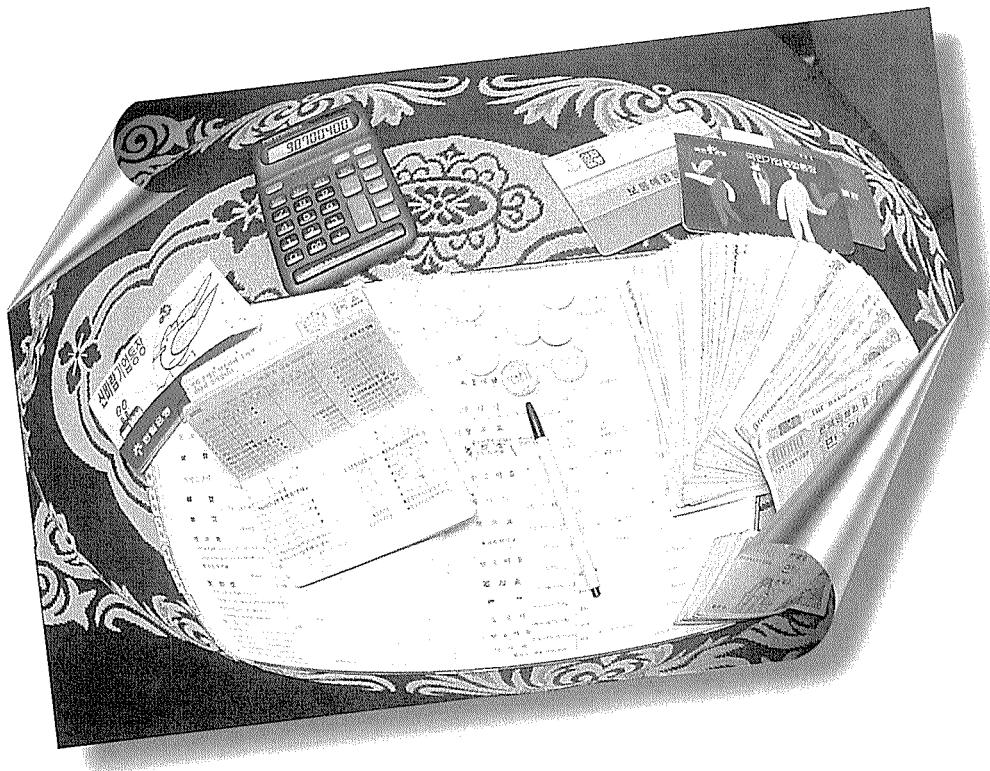
중소 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얻어내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것으로 인식돼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은행의 개인 대출서비스가

갈수록 나아지고 있으며 그 절차 또한 간편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제과점 사업자금 마

련을 위한 손쉬운 은행 이용법과 각 은행별 대출 상품을 상세히 소개한다.

□ 글·구성/ 강영주



-
- ① 최근 금융계 동향과 금융 상식

 - ② 종합통장이란 만능키로 대출 관문 뚫기

 - ③ 사업자금 마련위한 은행 대출 상품

최근 금융계 동향과 금융 상식

제과점을 신규 오픈 하거나 확장할 경우 사업자금 마련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투입되는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적지 않은 자금이 일시에 필요할 경우, 자기 자본금이 넉넉지 않은 사람은 당황하기 마련. 특히 제과인들은 주로 친분관계를 이용한 '계모임'이나 친인척 관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금융 상품을 이용해 보고자 할 때, 금융정보 및 지식이 없거나 은행 문턱이 높은 것으로만 인식되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은행을 이용하는 제과인들이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15평, 공장30평 규모 - '초기 필요자금 2억'

초기 제과점을 오픈하는데 보통 전체 소요 자금 중 거의 70%정도가 점포를 얻고(임대일 경우 보증금과 권리금) 매장과 공장을 갖추는 데 투입되며, 인건비를 비롯한 재료비, 기타 운영잡비 등은 약 20~25%, 여기에다 나머지 기타 경비가 추가된다. 다음 <표1>은 제과점 오픈 및 확장 때 소요된 비용과 자금 융통 방법을 각 제과점 별로 조사한 것이다.

<표1> 제과점 오픈 및 확장시 소요 자금과 자금 융통 방법

구 분	소요자금(단위:만원)	자금융통(단위:만원)
P제과점 (매장 20여평 규모) -초기 오픈 자금	· 오픈시 자기 자본금: 2,000 · 점포 계약금: 4,000(보증금)+1,500(권리금) · 월세: 170 · 부족금(점포 임대계약비에 한해서): 3,500	· 친지나 친구들을 통해서 융통. · 현재 수험에 월100만원씩 적금을 붓고 있으며, 4개월 정도 지나면 개인 신용이 인정되어 3,000만원 정도 대출이 가능.(앞으로 이를 사실투자와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할 계획)
H제과점 (매장 7평, 공장 35평 규모)-기존 점포가 있는 상태에서 타 지역 오픈 자금	· 총 필요자금: 1억 3,000 · 오픈시 자기 자본금: 3,500 · 부족금: 9,500	· 친지나 계모임을 통해 융통(5,000) · 은행 적금 대출: 4,000 · 일반은행 1년만기 300/1개월 · 보험회사 대출: 500 · 보장성+후복지연금부담 이용, 27개월 만기. 일시불 받을 경우: 200, 불입금의 70% 대출 가능
M제과점 (매장 15평, 공장 30평, 창고 50평 규모) -오픈 및 점포 확장 자금	· 총 필요자금: 20,000 (신규 오픈시) · 매장 확장 자금: 1억 7,000 · 총 소요자금: 3억 7,000 ※ 기계 구입 자금: 10,000(신규 오픈시)	· 일반은행 마이너스 대출 이용 -3개월만에 2,000만원 대출 -150/1개월

* 위 내용은 실제 조사를 통해서 집계된 자료이며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음을 밝힘.

개업이나 점포 확장에 드는 총 소요 경비를 모든 경우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환산하기는 사실상 어

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위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잖은 비용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예로 든 P제과점의 경우, 오픈 초기에는 친지나 계모임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다가 점포 오픈 후 은행 대출 상품을 이용, 오픈 당시 미비했던 매장 인테리어를 확충할 예정이다.

H제과점은 특이하게 보험상품을 이용한 경우인데, 자금 융통이 손쉽고 대출금리가 싸다는 이점이 있으나 대출금액이 소액이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중도해약시 손해가 따르기도 하니 주의를 요한다고 귀뜸한다. 한편, 올해부터 보험 비가입자도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막상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연 14~15%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M제과점의 경우는 총 3억 7,000만원의 다소 거액의 자금이 투입된 경우이다. 이 과자점은 과거 우수 기업체 근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금 회전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있었다.

M제과점의 업주는 초기 오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지의 명의로 여러 개의 은행에 9개의 적금 구좌를 개설,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귀뜸한다. 다소 편법이긴 하지만 은행 대출도 개인의 능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잘 이용만 하면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각 은행별 '고객 모시기' 경쟁 치열 전망

보통 은행돈은 아무나 빌리는 것이 아니라는 통념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통념과는 달리 의외로 손쉽게 적절히 활용할 수도 있는게 은행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OECD(경제 협력 개발기구)에 가입하면서 곧 국내 금융시장의 전면 개방을 목전에 뒀다.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높게만 보였던 은행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보이며, 각 은행들의 '고객 모시기' 경쟁 또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편승해 작년 1월부터 '소비자 금융의 꽃'이라 불리

는 할부금융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선보이게 되고, 작년 11월부터 대부분의 은행들이 일반 대출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춰 시장실세금리를 떨어뜨리는 데 적극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객입장에서는 좀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올해 들어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추가인하와 정부의 올 금융중계비용축소 등을 통한 대출금리인하 효과를 합하면 1~2%포인트 가량의 금리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말 각 시중 은행이 은행감독원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나타났다.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15개 시중은행 중 대출평균 금리가 가장 싼 은행은 평균 11.624%를 보인 국민은행으로 나타났다. 조흥, 외환, 제일, 신한은행 등의 순으로 평균 대출금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후발 시중은행(동화·한미·신한·하나은행)들

의 경우 대출금리가 낮은 대신 예금금리도 낮게 적용한 반면, 선발은행(조흥·한일·제일은행)들은 높은 예금 및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대출 서비스 갈수록 향상

이같은 금융환경의 변화로 이전보다 자금흐름이 원활해져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사라지는 추세는 대기업에서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보다는 해외자금이나 국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및 가계대출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예금 수신고 경쟁에 못지 않게 우량대출고객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대출제도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 ① 대출기간을 지금보다 늘린다.
- ② 대출금리를 금리나 기간에 따라 변동시킨다.
- ③ 사채나 제2금융권보다 유리하도록 은행대출 서비스를 늘린다.

실제로 1993년 이후 개인대출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다양해지고 편리해졌다. 은행에서는 요즘 새 상품을 내놓을 때 대부분 각종 대출과 연계시키고 있으며 대출금 액수도 늘리고 있다. 또한 부동산 담보가 없거나 보증인이 없어도 대출해주는 개인신용대출같은 상품도 나왔고 보험회사의 경우도 상품을 개발할 때 대출서비스와 연계되는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출서비스가 좋아지는 만큼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가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은행에서 대출조건을 완화하면서 부동산 담보나 연대보증인 등 안전한 담보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신 개인에 대한 신용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 각 은행들이 가계대출 상품의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창구에 게시,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개인들이 손쉽게 대출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은행창구에 가계대출상품 종류별로 금리 등 각종 거래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 전국의 25개 일반은행과 주택, 기업 및 농·수·축협 등 5개 특수은행은 대출금리, 대출고객이 부담하는 이자 이외의 부대비용, 대출금 상환기간, 상환방법 및 대출만기 후 미상환시 처리방법,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대출거래 제한사항 및 대출신청 자격요건 등을 게시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고객들은 자신의 대출목적 및 상환능력이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갖춘 은행을 쉽게 골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은 내친구, 금융 상식 들여다보기

“5%가 어딴니까?” 얼마 전 한 통신회사가 자사의 국제전화 요금이 싸다는 것을 강조한 광고 카피이다. ‘50% 가격 세일’이 유행하는 바람에 ‘5%’가 작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푼돈 모아 목돈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게 그렇지 않다. 특히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는 1%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금이자(수신금리)는 한푼이라도 더 받고, 대출이자(여신금리)는 보다 싸게 얻어내는 것이 금융상품 이용의 기본. 이것을 제제하다고 생각하는 통 큰 사람은 채테크의 실패에는 간 큰 사람이다. 먼저 일반적인 대출 방법의 종류에 관해 알아보자.

은행 대출은 그 대상을 기준으로 크게 개인 또는 가계대출과 법인 또는 기업대출로 나뉘는데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자금이 크지 않고 어느 정도 담보제공이 가능하며 개인신용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면 가계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편리하다.

자영업자가 기업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의 사업자금과 마찬가지로 대출절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엄격한 사업성 자금 용도 및 상환능력 등 심사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대출관계에서 고려해 볼 때 개인 자영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 또는 법인형태의 창업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업소득 규모에 대한 소득세의 적용세율과 법인세율과의 비교가 가장 큰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매출액과 손익, 관리기능 여부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일반적인 자영업자(혼자 또는 가족, 친지와 함께 하는 경우가 전체의 71%-'95년 기준)들은 사업이 적정규모에 오를 때까지 기업자금으로 무리하게 대출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가계자금은 개인 신용대출과 부동산대출로 나눌 수 있다. 대출방법으로는 주택 등을 담보로하여 대출하는 담보대출과 예금대출, 보험대출 등의 방법들이 있는데 적금이나 예금을 통한 예금대출이 비교적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이다.

1]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는 실제 시가가 아닌 감정가(감정가는 실제 부동산 가격의 70%선)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임대차보호대상 금액을 빼고 난 금액이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가가 된다. 이 담보가의 대략 70%선이 대출받을 수 있는 액수여서 실제 대출금액은 큰 주택이나 대형 부동산이 아니면 얼마 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1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실제 대출금액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나 대개 3,000만원이 채 안되는 것이 보통이다.

담보대출에 대한 문의는 각 은행지점과 보험회사나 상호 신용금고에 있는 용자 상담창구에 하면 된다. 대출절차는 용자를 신청하는 은행에서 담보물을 감정하여 용자여부를 결정한 후 대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전세계약서원본, 전세입자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이 짧고 만약 잘못될 경우 차압당해 경매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예금대출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비교적 안전하고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금대출이다. 각 은행마다 예금대출을 위

한 상품들이 있는데 대개의 조건은 거의 비슷하다. 적금이나 예금의 불입금액의 3배에서 12배정도의 금액을 대출해주며 제출서류도 부동산 담보대출에 비해 간단하다. 여기에는 국민은행의 국민종합통장, 한일은행의 튜올립통장 등의 종합통장을 활용한 대출방법과 기업은행의 내사업장마련통장과 특정용도의 저축상품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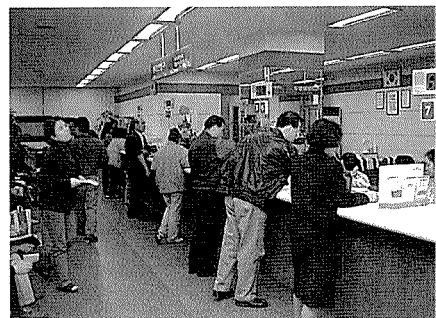
실례로 기업은행의 내사업장마련통장은 가입대상을 장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장래 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 대출가능 최고액이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시설자금대출로 5억원, 운전자금으로 3억원까지 대출해주며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 즉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업자금으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고독점 신용'의 비결 들여다보기

은행들은 지난해 금리 자유화 조치 이후, 시중의 자금사정과 은행들의 여건을 금리에 반영해 저마다 금리를 개성 있게 변화시켰다. 즉 은행들이 개인 고객에게도 신용 점수를 매기기 시작한 것이다.

신용도가 높으면 대출이 손쉬워짐은 물론, 금리 조건도 매우 유리해진다. 예를 들어 1백점짜리 최우수 고객에게는 싼 이자로 은행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고 예금에 대해서도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나 연체 횟수가 잦거나 예금 실적이 나쁜 고객은 은행 창구에서 홀대받는다. 따라서 이 같은 '금리 자유화 시대'에는 개인도 기업처럼 주거래 은행을 정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주거래 은행은 최우선적으로 거래하는 단골 은행을 말한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즉시 예금하고 대출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벌릴 수 있다. 앞으로 어느 한 은행에 거래를 집중시켜 신용을 쌓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골 은행을 잡아두면 신용 점수가 높아져 그만큼 금리나 서비스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금리 자유화 시대'에는 주거래 은행을 정해 두는 이 유리. 주거래 은행은 최우선적으로 거래하는 은행을 말한다.

최근 은행들의 고객 별 대출금리는 상황에 따라 2~3%씩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평상시 금융 거래 상태를 감안해 단골로 삼기에 가장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면 현명한 대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각 은행들은 우량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예금실적 (자금 기여도) ●월급·통합 공과금·전화료·보험료 등의 자동이체실적 ●거래 기간 ●신용카드 이용 실적 ●신용도와 담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개인 고객의 평점을 매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은행과 거래를 해야 개인 신용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국내 은행 중 가장 먼저 차등금리산정기준을 마련한 신한은행의 예를 들어 보자. 신한은행이 마련한 개인 대출 금리 산정 기준은 다음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① **자금의 기여도**
은행에 예금을 얼마나 예치했는지를 따지는 기준.
- ② **담보력**
집이나 토지 같은 든든한 담보를 갖고 있을수록 평점이 높아져 최고 30점까지 따낼 수 있다.
- ③ **거래 기간**
최초로 은행에 통장을 개설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점을 가산한다. 배점은 20점.
- ④ **계좌이체 이용도(세트 거래)**
급여나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 결제 계좌 이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4점이 가산된다. 이것 역시 배점은 20점.



신한은행은 이런 네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따져 총점 1백점 중 80점 이상을 얻으면 대출금리를 1% 깎아 준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 보

기 위해 3,000만원을 대출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를 가상해 보자.

K씨는 신한은행과 거래를 시작한 지 2년이 된 고객. 지난 3개월간 총 예금액은 평균 1,500만원(평잔 기준)이다. 또 급여·공과금·아파트관리비·신용카드 대금 이체 등 네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대출을 얻기 위해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치자.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은 산정 방식으로 점수를 매기면 그의 종합 평점은 81점이 된다. 평점이 80점을 넘었기 때문에 일반 개인 대출금리(연 12.5%) 보다 1% 포인트 낮은 연 11.5%에 3,000만원의 대출금을 얻어 쓸 수 있다.

따라서 K씨는 같은 액수를 대출받은 타 고객에 비해 연

간 30만원이나 절약할 수 있다. 만일 그가 여러 은행과 복수 거래를 하고 있다면 종합 평점이 낮아져 그만큼 이자 부

<개인신용평점 산출 방법>

- ① **자금 기여도**
총예금(1,500만원)÷총대출(3,000만원)×30=15점
- ② **거래 기간**
24개월×1=20점 (최고 배점)
- ③ **담보력**
총담보(1억원)÷총대출(3,000만원)=30점 (최고 배점)
- ④ **계좌 이체 이용도**
계좌 이체 이용 4개×4=16점

※이 기준은 은행 사정상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답이 늘어날 것이다.

은행에서 신용도 점수를 높게 받는 요령은 간단하다. 우선 예금과 통장 계좌를 한 은행에 몰아 두는 것이다. 급여나 공과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계좌 등도 한 은행에 집중시켜 신용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2> 각 은행별 할인 금리 혜택

은행명	할인 금리 혜택
국민은행	개인 거래실적과 신용도가 좋은 단골 고객에게는 가계대출금리(통상 12.5%)를 최고 2% 포인트까지 할인, 장기거래 고객으로서 예금액이 많은 수신 우수 고객은 2% 포인트 낮은 연 10.5%, 영입점장이 선정한 고객은 1% 포인트 낮은 11.5%로 대출 가능.
보람은행	※고객의 기여도와 신용도에 따라 6단계로 나눠 최고 2.5% 포인트까지 할인, 대출금리는 최우수고객 10%, 우수고객 10.25%, 준우수고객 10.5% 우량고객 11%, 일반고객 12.5%. ※금리평점산출은 1백점 만점으로 자금기여도 45점, 신용카드 이용실적 10점, 계좌이체 기여도 10점, 거래기간 기여도 10점, 향후기대효과 5점, 담보력 또는 신용 평점은 20점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인대출 한도를 종전의 최고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올림.
상업은행	※월급생활자는 최고 3,000만원, 개인 사업자나 영세 상인은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시로 돈을 빌리거나 갚을 수 있다. 이 은행은 10일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자금을 빌리고 또 여유 자금이 생기면 갚았다가 별도의 대출 절차 없이 빌려 쓸 수 있는 '소매 금융 한도 거래제'를 도입했기 때문. ※담보가 없는 개인은 2,000만원까지는 보증으로, 신용으로는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 회전거래제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용하는 당좌거래와 마찬가지로 고객이 미리 약정한 1,36개월 또는 1년 기한 내에서 수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 연장도 가능. 대출절차가 간편하면서도 금리가 낮고 상환 기간도 길다는 것이 특징.
신한은행	※가계일반대출과 신탁대출 금리를 최고 1.5%포인트까지 깎아 준다. 금리평점별 금리차등내역을 보면 일반 대출의 경우 90점이상은 1.25% 포인트 낮은 연 11.25%, 80점이상은 1.5%가 적용, 70점이상은 1.75%, 60점이상은 1.2%, 50점이상은 1.25%이다. ※개인 고객이 3,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자유저축 3개월 평잔 700만원(21점), 거래기간 5년(20점), 담보제공(10점), 가계종합예금(15점), 통합공과금 이체(10점), 신한비자 특별회원(10점), 전화료 이체(5점)이면 91점을 받아 최우대 금리로 대출 받는다.
조흥은행	※기여도·신용도를 감안한 금리평점에 따라 0.5~1.5%까지 할인. 금리 평점은 70점이상은 1.5%산 연 11%, 60점이상은 11.25%, 50점 이상은 12%의 금리가 적용. 신탁대출의 경우 3%까지 우대금리가 적용. ※평가항목별 배점은 자금기여도 45점, 신용카드 이용실적 10점, 계좌이체 10점, 거래기간 10점, 향후기대효과 5점, 담보력 또는 신용도 20점.

※위 사항은 은행별 사정에 따라 수시 변경 가능성이 있음.

‘종합통장’이란 만능키로 대출 관문 뚫기

은행의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가장 편리하고 그 이용범위가 넓은 것이 ‘종합통장’이다. 종합통장이란 말 그대로 예금·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은행 거래를 통장 하나로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과거에는 보통예금통장, 정기적금통장, 대출통장 등을 따로 마련해 거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통장을 사용해야 했다.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은 통장을 한 뭉치씩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통장이 많은 사람은 근검 절약의 표본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통장이 많다 보면 분실 위험이 크고, 매년 다른 통장을 가지고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종합통장은 바로 이러한 불편을 개선해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우대정기적금 등 저축성 예금을 통장 하나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합통장은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현재 개인·가족·자영업자 등 이용자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 있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며 각종 기본계좌와 연결계좌의 실적을 합산·적용해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표3〉 은행별 대출 특징

은행명	개인 대출 특징
국민은행	국민종합통장을 거래하면 대출 자격이 주어짐. 대출기간은 1년. 모계좌와 본인 예금 및 연결계좌의 예금거래 실적, 최근 3개월간의 국민카드 거래실적(본인 및 가족회원), 공과금 자동 납부실적 및 급여이체 실적을 합산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 예금 잔액이 없더라도 약정 금액까지 자동 대출되므로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매우 유리.
조흥은행	거래실적뿐 아니라 직업·직급 등을 자격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토록 해 거래 실적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자격이 되면 자동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래실적은 최근 3개월간 예·적금 평균 잔액의 3배, 최근 6개월간 지로 자동이체 실적의 3배 등을 합산해서 계산.
상업은행	3개월 이상 거래한 고객에 대해 최근 3개월간 예금 평잔의 2배, 최근 3개월간 정기 예·적금 납입 평균액, 급여이체 실적 등을 합산해 5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준다. 적금에 가입하면 2,000만원까지도 가능.
농협	3개월 이상 거래한 고객에 대해 최근 3개월 거래실적(평잔)에 농협통장의 가계금전신탁거래 기간별 우대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최근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종합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대출이 손쉽다는 점이다.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500만원까지는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고 3,000만원까지 일반 대출도 가능하다. 또 종합통장으로 정기적금이나 적립신탁에 가입할 경우 불입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대출자격기준이나 한도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표4〉 은행별 종합통장의 특징

은행명	특징
국민은행 (국민종합통장)	‘편리한 개인금고’란 슬로건을 내건 종합통장. 기본계좌는 보통예금·저축예금·가계당좌예금 등이다. 급여·연금·신탁이익·배당금·정기예금·이자·계좌간이체자금 등이 자동으로 입금되며, 정기적금·상호부금 월부금·대출이자·통합 공과금·각종 카드 이용대금 등이 자동 지급된다.
서울은행 (서울종합통장)	※가입대상자를 우대받는 성격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한 것이 특징.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및 중소기업(기업우대·1억5,000만원 대출), 만 50세이상의 개인(부모우대·최고 500만원 대출), 봉급생활자(급여우대·최고 500만원 대출), 12개분야 전문가(전문가 우대·500만원~3억원) 등이 있다. ※기본계좌는 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보통예금·기업자유예금 등이다. 가입자에게는 통장예금자동대출 및 각종 서비스 혜택을 준다.
제일은행 (새시대 종합통장)	일반 가계는 물론 중소기업자도 이용 가능. 대출 최고 한도액은 일반 개인이 5,000만원, 전문직 종사자 8,000만원, 자영업자 2억원, 중소기업 3억원 등으로 높은편. 대출한도는 예금실적과 일정한 기준율을 곱하고 여기에 급여이체 및 공과금 납부 실적을 더해서 산출.
주택은행 (한가족알찬 은행)	예금·대출·공과금 납부를 한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고 예·적금 실적으로 1,000만원, 공과금 이체로 100만원, 주택 자금으로 최고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 협력업체를 이용해 이사할 경우 10%할인혜택 부여.
한일은행 (카네이션종합통장)	일반 자금을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거래기간이 길수록 우대율이 높게 적용되는게 특징. 적금대출도 3,000만원까지 가능.
수협중앙회 (수협종합통장)	※최고 1,100만원까지 자동대출이 가능(단 대출금에서 100만원어치 수산물을 구입해야함). 대출한도는 「거래실적한도+기본한도+거래기간별우대한도+수산물 구입용 한도」를 더하여 산출하며 수협신용카드 소지자를 우대. ※수협기업종합통장을 통해서도 예금 평잔 합계액의 3배 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자동대출이 가능.

〈표5〉 편리하고 유용한 대출 목적의 각 은행별 종합통장

은행	통장명	대출 내용(최고 한도, 단위:만원)
조흥	조흥100년 종합통장	가계자금대출(1,000), 적금대출(3,000), 소액대출(50)
상업	한아름통장	일반대출(500), 적금대출(2,000)
외환	장미종합통장	일반자금(1,000), 적금대출(3,000)
신한	근로자 OK	급여이체대출(500), 자동이체대출(1,000) 등 최고 5,000
한미	한미종합통장	자동대출(500)
하나	하나종합통장	하나대출(50), 일반대출(500), 정기예·적금 담보대출(2,000)
보람	애플종합통장	일반대출(1,500), 적금대출(1,100)
농협	알찬가족통장	신탁대출(최고 3,000)
기업	기은종합통장	일반대출(3,000)

사업자금 마련위한 은행별 대출 상품

개업자금 및 확장 자금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자기 자금의 규모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금의 비율은 적어도 2/3는 되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차입금의 부담이 크면 그만큼 이자의 부담이 늘고, 이자의 부담이 클수록 이후 과감한 재투자나 확장을 위한 자금 적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자기자금 마련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계나 적금 등으로 적립해놓은 자금이다. 이러한 자금은 개업이나 확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목표를 세워서 계획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 목표의 설정은 사업의 초기관문이라 할 만큼 중요하다. 적어도 그 정도의 준비과정과 정신상태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은행과 거래할 경우에 반드시 규모가 큰 곳과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금융기관은 종류가 많고 기관마다 특징, 업무내용, 영업방침이 각각 다르기 때문

에 자신의 사업에 가장 적합한 조건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인 신용대출

최근 '무보증 무인감' 신용대출제도가 모든 은행권에 확대 실시되고 있다. 92년 평화은행에서 본인 서명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평화즉일대출」이 나온 이래 다른 은행에서도 신용대출 상품이 다양해지고 내용도 풍부해지고 있다. 이전까지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거나 복잡한 대출절차를 거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담보물 없이도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우선 신용대출이란 용어를 알아보자. 금융기간에서 말하는 '신용대출'이란 담보재산(주로 부동산)이 없어도 대출해주는 것이다. 신용대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연대보증인을 세워 대출받는 것. 둘째, 연대보증인이나 아무런 채권보존조치 없이도 대출해주는 것이 있다.

따라서 신용대출에도 보통 연대 보증인이 1~2인 필요하다. 연대보증인이 없는 신용대출은 주로 직장, 직업, 직위 등을 따져 대출금액을 산정한다.

한편, 제과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대출 상품은 종합 통장을 통한 「마이너스 대출」이 있다. 마이너스 대출이란 본인의 신용을 은행이 평가해 대출한도를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자격 한도만을 부여한다. 다른 대출과의 차이점은 대출여부가 신용원칙이고 거래방식상 한도거래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한도를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쓸 수 있으며 쓴 만큼만 이자를 내면 된다. 1,000만원의 대출한도를 가진 사람이 300만원을 빌려썼다면 통장에는 마이너스 300만원이 찍히지만 그 이외에 추가로 7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982년 국민은행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마이너스 대출을 도입했는데, 아직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급은행에 따라 상품 내용도 차별화되어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사용해야 한다. 한편 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한 제과점주는 「서울은행 마이너스 대출」을 권하고 있다. 마이너스 대출을 활발히 해주고 있는 이 은행의 경우 3개월 이상 각종 통장을 거래한 실적을 합쳐 500만~3,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에 따른 걱기가 없이 급여이체만으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은 조흥·한일·상업·국민·신한·동남은행 등으로 3개월 이상의 급여이체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고 조흥·제일·신한은행 등은 3개월 급여 평균잔액의 3배까지 대출한도가 가능하다.

마이너스 대출은 급여이체뿐만 아니라 각종 예금평잔,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한도를 증액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대출은 주거은행에서 받는 것이 좋고,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의 종합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이자율은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연이율 12.5% 수준이므로 신탁대출금리에 비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통상 1년이고 약정을 통하여 마이너스 대출한도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날 다시 한

도를 지정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제일은행이 국내은행 최초로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신탁마이너스 통장」 대출제도를 지난달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신용대출의 절차의 간소화는 먼저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평화은행에 이어 외환은행에서도 93년부터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인감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 대출금의 범위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후발은행인 보람은행, 하나은행 등은 이미 초기 단계부터 대출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생략하기도 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담보물을 설정하지 않는 대출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에서는 기왕에 운영해 오던 신용대출을 요건을 해마다 완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이 대출은 담보나 보증인 없이도 개인의 직업, 직위, 재산상태, 거래실적을 종합하여 대출해주므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신용대출을 정착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국민은행에서는 가계자금대출의 경우 도장 없이 서명만 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개선·실시하고 있다. 조흥은행의 경우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올 경우 원금의 20~30%를 갚아야만 대출기한을 연장해주던 데서 신용과 담보만 좋으면 대출기한을 연장해주도록 했다.

하나은행에서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 전용통장 「하나크레디트통장」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일은행은 그전에 은행거래가 없어도 대출해주는 「한번사인신용대출」을 내놓았다.

■ 신탁마이너스통장대출(제일은행)

기존 은행거래실적 없이도 고객의 담보력이나 정형화된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통장가입 즉시 최고 담보대출 1억원, 신용대출 3,000만원까지의 대출한도를 설정해 고객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품.

대출금리는 신용대출이 13.95%, 담보대출이 13.75%이다. 대출가격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대출기간은 1년이며, 개인은 5년까지 대출금 상환없이 연장이 가능. 기업

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평화즉일대출

이 상품은 말 그대로 대출기간을 앞당겨주는 대출 상품으로 은행권에서는 선도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생략함으로써 시중은행들 사이에 무보증 신용대출 바람을 일으켰다. 만 25세 이상의 근로자라면 보증인이나 본인의 인감증명서 없이도 대출신청을 당일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평화즉일대출을 받으려면 평화은행 저축통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적어도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통장가입 후 6개월 이상 거래한 사람으로 최근 3개월간 예금 평잔 100만원이 넘어야 대출혜택이 있다. 또한 최근 6개월간 급여를 평화은행 통장으로 이체한 경우에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매달 이자만 내고 1년안에 원금을 갚아야 한다.

■ 조흥은행 신용대출

대출한도는 4,000만원. 또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재산세납세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즉 자체 신용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개인의 직업이나 신용 등급에 따라 본인의 서명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 국민은행 신용대출

국민은행에서는 1,000만원 이하를 대출기간 5년 이내로 대출해줄 때는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은 직업평가기준표와 개인신용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직업평가기준표는 직업과 직위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개인신용평가표는 연령, 직업, 근무연수, 재산상태, 은행 거래실적, 조세 납부실적 등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렇게 종합평점을 낸 후 최고 2,000만원까지 신용대출 액수가 정해진다. 이 은행 여신부에 따르면 이러한 신용대출방법은 거래실적에 따른 대출 보다는 후순위라고 한다. 즉 은행거래실적이 없는 개인의 경우 직업이나 직위만 따져서 대출받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보통 500만원까지는 무보증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액수는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대출금 1,000만원이면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재산세를 3만원 이상 내는 사람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넘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출금이 3,000만원일 때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재산세 5만원 이상, 연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국민은행은 이 밖에도 전략상품으로 제조업 근로자대출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생산직근로자를 포함하여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나 1,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대출제도는 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사람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는 기능사자격증 소지자에게 500만~2,000만원을 대출해주는 기능사우대대출이 있다. 또한 봉급생활자 가계부업자금 대출제도도 마련돼있다. 가게에서 사업자등록증 없이 부업을 할 때는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다.

■ 온가족OK종합통장(신한은행)



예금주는 물론 부모님과 자녀에게도 대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 93년부터 대출한도를 1억원으로 크게 높였다. 이 상품은 집을 담보로 할 경우에도 다른 시중은

행보다 대출용도가 다양하다는 이점이 있다. 우선 예금주 본인에게 대출되는 용도로는 평생대출, 카드론이 대표적이다. 평생대출은 예금실적에 따라 3년 상환조건으로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주는 것. 카드론의 경우 최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 그외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의 보증보험부 대출

최근에는 부동산담보나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보증보험회사를 통하는 방법이 보편화되고 있다. 대한보증보험이나 한국보증보험 등 보험보증회사를 통해 보험증권을 받아 대출받으려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 대출받

았을 때 보증보험회사에 내는 보증보험료는 연 0.7%~1.0%이다. 보증보험서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22세이상 60세이하이다.

보증보험회사를 찾아갈 때는 개인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연말근로소득명세서, 인감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보증보험회사에서 정한 신용평가표에 따라 대출한도가 나온다. 그런데 보험증권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 1~2인을 내세워야 할 때도 있다. 보증서를 상호신용금고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500만~1,000만원까지 신용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상호신용금고나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들과는 달리 거래실적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즉시 대출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출금 상환은 1년에서 3년 사이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도록 돼있다. 한편 보증보험회사에서 정하는 신용평가기준은 점점 까다로워지는 추세이다.

② 중소기업자를 위한 대출

최근 각 은행들은 금융실명제 이후 자금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진 중소기업자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상품들을 많이 내놓았는데 눈여겨볼 만한 상품들이 꽤 있다.

이들은 우선 외환은행의 「한가족 평생통장」이나 보람은행의 「보람자유부금」처럼 기존의 상품 중에서 비교적 대출이 용이한 것이 있는 반면, 아예 상품의 대상을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정 짓는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은행이 「내사업마련통장」이나 상업은행의 「자영업우대통장」이다. 이들 상품의 특징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훨씬 유리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창구를 찾아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 쉽다.

먼저 사업자금 마련시 은행의 용자를 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각 은행에서 자기은행의 용자를 받는 사람에게 대해서 신청서를 쓰게 하고 있다. 신청서에는 희망금액, 용자기간, 방법, 점포의 위치, 명칭, 대표자명 등을 기재하게 돼 있다. 빌리는 돈은 운전자금(필요한 재료의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설비자금(기계설비 명칭, 수량, 금액) 등으로 나누어 정확히 기재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쓰고 그 자금으로 인해 사업이 얼마 만큼 어떻게 진전되는지까지 상세히 기록한다.

그 이외에 영업의 내용, 주거래처, 점포평수, 주요기계의 형식, 성능, 대수 등과 대표자의 약력, 연대보증인, 담보의 유무 등을 함께 기재한다.

일단 사업자금을 용자받은 후 다음과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은행으로부터 일정기간 일정액을 대부받았다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대부기한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다소 짧은 듯하다가 대부관계자로부터 '저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은행에 좀더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는 판단이 들게 하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반대로 대출을 받는 동안에 사업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다거나 신용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얼마든지 불리한 조건을 들고 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물론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을 때는 민감하게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게 또한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의 속성이다. 특히 용자를 받은 사업체가 초기에 조사할 때보다 영업 상태가 좋지 않아졌을 경우에는 금융긴축정책을 펴서 대출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한도를 감소시키든지 추가 담보를 요청하기도 할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과의 거래를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신경을 써야 하며, 혹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동안의 신의를 바탕으로 풀 수 있도록 평소에 은행측과의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평화백일대출(평화은행)**

평화백일대출은 대출받은 후 100일동안 매일 갚아나간다. 따라서 이자 상환부담도 적고 매일 현금이 들어오는 소규모 제과점이나 중소기업자에게 알맞는 상품이다.

대출 대상자는 중소기업, 상인, 자영업자이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방법은 인감증명이나 도장없이 서명만으로 대출해주는 신용대출이며 대출금을 갚는 방법은 대출금의 1/100에 해당하는 원금과 하루분 이자를 매일 100일 동안 갚아나가는 것이다. 일수사채와 마찬가지로 매일 갚

아나가면서도 사채보다 훨씬 이자가 싸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일수사채는 이자로 100만원을 내지만 평화백일대출은 9만1,612원만 내면 된다.

이자만 자그마치 90만8,388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 사채이자와 달리 평화백일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만큼 대출이자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100만원을 대출 받았을 경우 첫째 날 1만349원, 둘째 날 1만345원, 셋째 날 1만342원 등으로 100일째 되는 날은 1만3원을 내면서 대출금 상환이 마무리된다. 1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연 12.75%인 1만8,283원이다. 또 상환금을 연체하더라도 만기일까지는 연체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출금의 상환은 대출할 때 만든 자동이체용 예금통장에 매일 입금하는 방식으로 한다.

■ **자영업우대 종합통장(상업은행)**

9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신상품으로, 중소기업자의 거래편의 및 편리성을 제공하는 종합통장. 한 통장으로 일반예금, 신탁거래 및 대출거래를 할 수 있으며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 가입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기업자

· 상품특징

가) 종합통장기능 : 입출금 계좌, 적립계좌, 자동대출제도

나) 자동대출기능 : 최고 1억원/일반대출한도(한도거래)

:5억원 이상, 신탁대출: 5억원

다) 적립방법의 다양화 : 적립성 상품의 종합거래

■ **한가족 평생통장(외한은행)**

가족전원의 은행 거래실적을 합산하여 대출한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유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족전원의 생활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증여세의 부담없이 세금 우대 제도를 활용하여 전가족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종합 금융 상품이다.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이며 연령에 상관없이 가능

· 한가족의 범위: 가족대표(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 대출제도

대출종류	대출자격	대출한도	비 고
회전대출	가족구성원 중 에 3개월 이상 거래한 자	1인당 3,000만원 이내	대출신청일 현재를 기준 으로 수신거래 실적, 금 여이체실적, 신용카드 사 용실적을 기준.
장기실적 대출	가족구성원 중 에 3개월 이상 거래한 자	1인당 5,000만원 이내	대출신청일 현재 가족명 의 저축성 계좌의 회전대 출을 포함.

■ 새출발 자립통장(대동은행)

장래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봉급생활자에 대해 일
정기간 적립토록 하고 이후 여신지원을 보장하는 금융상
품이다.

- 가입대상: 근로자 및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개설일로부터 가입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 대출자격: 1년이상 거래한 자
- 대출종류별 대출한도 및 시기

대출종류	대출한도	대출시기
자립자금대출	3억원	자립 또는 사업확장시
긴급자금대출	1,500만원	가계 또는 기업자금 필요시
경영자금대출	어음전량	자립 후 기업자금 필요시
공과금자동대출	50만원	공과금 자동이체 부족자금 발생시

■ 보람자유부금(보람은행)

- 가입대상: 개인이나 중소기업자
- 대출자격: 계약기간의 1/3이 경과한 자
- 대출한도: 납입평균잔액×5배-기납입부금

- 최고한도: 개인 2,000만원, 기업 5,000만원

■ 하나 사업가클럽(하나은행)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사업운영자금 및 설비자금을 포
함한 긴급자금까지 지원해 주는 상품.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들
의 상시적인 자금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신속하고 편리
한 대출서비스를 통해 가입회원의 고정 고객화를 도모하
기 위해 개발된 상품.

- 가입대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하나은행과 각종 계좌
이체(급여이체, 공과금, 보험료 등)를 개설한 부수거래자이
면 된다.
- 대출: 회원가입 후 2개월부터 부금계약액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가능. 대출금상환은 매월 이자상환 및 원금 만
기일 때 상환하면 된다.
- 기타사항: 세무 및 법률상담서비스, 환전우대서비스, 신용
카드발급 및 가맹점 가입시 특전부여, 기타 부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 TOP 자유신탁(동남은행)

매월 수익금이 일정치 않은 상업 및 자영업을 하는 사
람과 급여생활의 상여금, 가계의 생활여유자금 등을 납
입금액, 납입일, 납입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예금할
수 있으며, 거래실적에 따라 용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편
리한 적립식 부금.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및 중소기업자
- 용자대상: 계약기간의 1/4 이상 경과한 계좌. 영세소사업
자인 경우는 1/6 이상 경과한 계좌
- 용자한도: 가계-최고 2,000만원, 중소기업자: 최고 1억원
- 특전
 1.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납입기간이 길수록 대출금액이 많
아진다.
 2. 종업원수 30인 이하(상업 및 기타 서비스업은 종업원수
5인 이하)인 영세 소자영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대출해주
는 상품이다.
 3. 만기해지 후에도 6개월까지 대출이 가능.
 4. 납입한 금액내에서 자금 필요시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

■ 내사업마련통장 및 기은종합통장(기업은행)

장래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상호부금, 정기예금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최단 예치기간은 3년, 최장 예치기간은 15년이다. 재예치할 때마다 3년씩 연장 운용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시설자금은 최고 5억원, 운전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3,000만원이다.

용자 가능 요건은 사업장 구입(임대자금), 사업장 신축·확장·개수자금, 영업용 기자재 및 차량구입 등이며, 용자한도는 소요자금의 80%(사업장 구입자금은 70%) 범위 내이다.

거래기간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3년 이상은 3배, 6년 이상은 6배, 9년 이상은 9배, 12년 이상은 12배의 할증을 받게 되며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는 3, 6, 9, 12년 단계로 2, 3, 5, 8배의 할증을 받게 된다.

■ 신바람기업통장(한일은행)

신바람기업통장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금융 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함은 물론, 대출을 신속하고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우대 종합통장이다.

가입대상은 대기업, 중소기업체, 자영중소사업자 등이다. 모계좌는 보통·저축·기업자유 중 하나이며 연결계좌는 복리식 정기예금, 정기예금(공모주 청약예금 제외), 정기적금(가계우대 정기적금 포함), 개발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꿈모아적립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등이다.

예금 예치한도는 제한이 없다. 자동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거래가 있어야 하며(기존 거래자는 1개월), 대출기간은 1년이다. 중소기업체에는 2억원, 자영중소사업자에게는 1억5,000천만원이다.

신바람대출은 3개월 이상 거래자, 연결 적금을 1/9회차 이상 납입한 사람, 꿈모아적립신탁을 1/9회차 이상 납입한 사람에게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체와 자영중소사업자에게는 1억5,000만원,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1억원까지 대출되며, 대출기간은 계약기간내에서 최장 5

년이다.

구 분	대출자격	대출한도(단위:만원)			대출기간
		중소기업체	자영중소사업자	전문직종사자	
자동대출	3개월 이상 거래자 (단, 기존거래자는 1개월)	2억원	1억 5,000	5,000	1년
신바람 대출 기업자금 대출	3개월 이상 거래자 연결저금 1/9회차 이상 꿈모아적립신탁 1/9회차 납입자	1억 5,000	1억 5,000	1억원	최장 5년 계약기간 내
내사업장마련 자금대출 내공정마련 자금대출		3억원	3억원	3억원	최장 5년 계약기간 내
동일인한도		5억원	5억원	1억 5,000	

향해사가 미리 뱃길을 예측하고 잡아나가듯

제과점과 같은 소점포 사업을 시작할 때는 최소한 상점은 자기자본으로 얻어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이다. 그래야 사업이 안정기를 맞이 할 때까지 궁색하지 않을 수 있고, 설혹 그 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낼 내항력을 가질 수 있다.

개업이나 점포를 확장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총자본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산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향해사가 뱃길을 미리 예측하고 잡아나가듯이 아무리 작은 부분에라도 거기에 맞는 자금을 예측하고 계획대로 집행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가능한 한 충분한 검토와 과학적인 검증만이 사업의 성공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은행의 문턱낮추기’. 최근에 불고 있는 이같은 바람은 소위 ‘빅뱅’으로 일컫어질 정도로 금융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편승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사업특색에 맞게 은행을 제대로만 이용한다면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 우물에서 승능을 찾으려는 우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

